

挿圖에 臨流閣址를 表示하고 있으나 이地點은 公山城과 그 東便에
 솟아있는 玉女峯과의 境界線上으로 되어있는데 이地點을 아무리 찾아
 보아도 兩峯이 險峻한 山비탈로서 建物址로 推定할 處가 없을뿐만 아
 니라 穿池云한 處자리는 더욱이 想像조차 할 수 없다. 筆者가 이곳서
 推定하려는 臨流閣址는 公山城의 東쪽 最高地帶인 光復樓가 있는 西
 쪽 丘降下에 廣場이 있고 廣場北쪽에 該當한 北쪽 地點에 다른 地帶
 보다若干 두드러진 一辺長10m의 正方形으로 된 建物址 비슷한 것이
 있어 그곳에 礎石 몇개가 點在하고 있어서 尙상 注目되던 處이다.

그런데 一九六一年十二月 그場所에 세워진 四·一九學生記念碑의
 鐵柵工事を 調査次가가 建物基礎工事に 使用한 百濟式數塔과 「註」
 字(拓本參照)가 들어있는 瓦片을 얻게되어 建物址로서의 確證을 얻게
 되었고 文字瓦에서 혹시 臨流閣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 穿池云云한 處자리는 現在 靈隱寺의 바깥마
 당가에 남아 있는데 이 處물은 溪谷水를 利用하여 만든 것이 地理上으
 로 보아 틀림없을 듯하다. 臨流閣의 高가 五丈이나 되는 高樓이라 하
 니 그곳서 내려다 보면 비단 장물이 眼前에 둘러있고 處에서 재롱하
 는 奇禽들의 姿態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推定 臨流閣址가 宮城
 址의 東에 位置한 것으로 보아서 三國史記記事와도 符合되는 바 있다.
 (臨流閣址에서 發見된 遺構와 遺物은 本誌 卷三第一號 資料欄拙稿參
 照)

八公山上峰의 磨崖如來坐像

— 新羅五岳調査記 其三 —

鄭 永 鎬

八公山 主峰(一一九三m高地)의 石佛立像①으로부터 上峰標石이 있
 는 石城②을 바라보며 西便稜線을 따라 세째번 岩峰에 이르던 南向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한 岩壁(高四m 幅
 三m)에 坐佛이 陽
 刻되었는데 이곳은
 人跡이 전혀 없었던
 處로 岩面에는 蘇苔
 가 덮혀있고 周圍에
 雜草木이 茂盛하여
 佛像을 곧 發見하기
 는 좀처럼 어려웠
 이다. 總高 三·八m
 로 蓮華座위에 結跏



趺座한 如來像으로서 光背를 具備하였으며 方位는 正南面에서 西로約
 一五度쯤 向했고 彫刻各部에 풀 或은 이끼가 있어 彫飾을 곧 確然히 判
 別하기는 쉽지않다. 螺髮로 推定되는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
 眼은 半開하였으며 眉間에 白毫는 없다. 鼻部와 口唇等이 整齊되고 兩
 耳는 어깨위까지 길게 드리워져 堂堂한 가슴 어깨와 잘 어울리어서 威
 嚴이 있어 보인다. 相好는 圓滿하며 양볼과 口唇에 微笑가 어리어 慈悲
 스러우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 流麗한 衣文이 左
 腕을 거쳐 무릎을 덮었으며 발목으로 앞자락이 흐르고 있다. 左手는
 무릎위에 自然스럽게 놓아 持物이 있으며(藥盒?) 右手는 무릎위에 느
 리워 外掌하였는데 그 손금(指線)이나 五脂의 매디매디 表現이 뚜렷하
 고 彫線이 美麗하며 양쪽 팔목에는 「팔찌」가 彫飾되어 있어 더욱 注目
 되었다. 光背는 內曲된 感을 주며 頭、身光으로 區分되는 바 頭像周邊에
 는 큰 蓮華六瓣이 있고 太二條線을 돌렸으며 그 밖으로 다시 二條를 돌
 러 頭光을 이루었는데 그間地에는 雄渾한 唐草文이 彫刻되었다. 身光
 은 어깨위 頭光으로부터 二條가 내려져 區分되었는데 그 內緣의 間地에
 도 唐草文의 彫飾이 있다. 蓮華座는 무릎밑에 單瓣仰蓮이 二重으로 接
 쳐있고 그 밑에는 마치 연잎 같기도한 半仰蓮이 옆으로 펼쳐져 있어 類
 例가 드문 華麗한 蓮華座를 이루고 있는데 더욱이 仰蓮의 中央大瓣內에

는 귀꽃모양의 山形文이 彫飾되었고 豊麗하고 自然스럽게 느리워진 蓮瓣의 手法에 注目되었다. 坐像周緣에는 蓮華座에서 頭光頂上까지 寶珠形을 그리며 雄麗한 火焰이 彫刻되었다.

各部彫刻이 完全하고 어깨와 가슴이 堂堂하며 均整한 몸매와 雄健한 各部手法로 보아 年代는 羅代 佛教美術의 精華期에 造成된 秀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坐高 二〇〇 頭高 七〇 肉髻高 一五 耳長 四〇 肩幅 八〇 胸幅 五四 膝高 四八 膝幅 一四三 光背廣幅 二〇〇 蓮華座幅 一〇七 蓮華座高 上四三 下三三 拜禮石으로 推定되는 板石 八四cm × 一一三cm 陽刻厚 一五이다.

이 調査는 新羅五岳調査團의 第二次 調査計劃으로 지난 二月三日부터 約二週日間 實地된 八公山 踏查時 一行 文甲洙, 金和英 諸氏와 桐華寺僧 李鏡海 念佛庵負木인 朴仁奎氏 等과 筆者에 依하여 一月六일에 처음 發見되었는데 그날은 夕陽이어서 佛像의 位置만을 確認하고 돌아왔으며 翌日인 七日에는 桐華寺의 諸僧과 金和英, 筆者 等 一行이 三次로 山頂에 올라 찰영과 實測等 再調査를 實施하였다. 언제부터인지 이곳에는 人跡이 끊어져 佛像을 拜謁하는 客 하나 없던 이곳에 一月七日을 期하여 雜草木을 헤쳐 새로운 通路가 마련되고 佛前에 供養을 올리게 됨에 一同 感慨無量하였다. 坐像바로 앞에 놓인 平坦한 自然石을 拜禮石으로 삼고(실상 인즉 拜禮石으로 推定된) 一行은 再拜를 올렸다.

註

- ① 拙稿 「八公山頂의 石佛兩軀」(本誌 第一卷 第三號)에서 (二) 主峰巒崖石佛立像
- ② 石城은 上條에 三處現存하는데 모두 石城築造의 通式으로서 그中 頂上標石이 있는곳에 길이 二二m의 石城이 남아 있다.

靑華白磁 「丙申」銘山水文八角瓶

鄭 良 謨

우리나라 靑華白磁(世祖以後) 文樣이 明靑華의 影響을 받고 回靑道明에서 求得하던 極初期를 조금 지나면 回靑이나 土靑을 併用하던時期로부터 李朝獨自의 文樣이 漸次로 確立된다. 즉 文樣의 主題와 作圖가 韓國的으로 되어가고 器面의 一部分에 限하여 簡潔한 文樣을 조금씩 나타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당시 施文手法으로는 器面의 어떤一部分에 그대로 施紋하는 方法, 器面의 一部分에 施文하되 一定한 구획을 지어 놓아서 즉 四花形 또는 稜形(四稜形), 圓形內에 施文하는 方法, 그리고 器面의(주로 항아리 甁류의 경우) 밑으로부터 1/3되는 곳에 가로 一線을 劃하여 그위에 施文하는 等의 手法이 있다. 이러한 手法은 初期부터 末期까지 그대로 계승되지만 단지 後期로 갈수록 문양이 그릇의 面을 차지하는 面積이 커지며 一定한 구획의 범위가 넓어지고 무늬가 많아지며 이와같은 施文手法이 검쳐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紹介하러 는이 「丙申」銘靑華白磁瓶은 이러한 裝飾무늬와 器形의 變遷을 종합적으로 考察할 수 있는 資料로서 李朝靑華白磁研究에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瓶은 八角으로 된 長脛瓶이며

